

여성들의 일상에 '활기를'

‘2023년 군산시 여성한마음대회’ 26일 개최

군산시는 오는 26일 월명체육관에서 ‘2023년 군산시 여성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화합의 장으로 지역내 13개 여성단체 회원 및 시 거주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여성한마음대회는 아랑고고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및 기념식에 이어 2부 행사로 어울림 한마당 및 경품 추첨 순으로 진행된다.

김성희 여성단체협의회장은 “평소 여성의 지위향상에 힘써

온 여성단체 회원들을 비롯한 많은 여성들이 더 화합하고 발전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가졌다”며 “이번 한마음대회를 통해 여성들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여성들의 일체감을 더 높이고 여성의 잠재능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 기반 구축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한마음대회는 지난 2002년부터 코로나19 시국을 제외하고 매년 열리고 있다.

/군산=이찬우 기자

2023 군산시 여성한마음대회 개최

오는 26일 월명체육관에서 열려...군산 거주 여성 누구나 참여 가능

군산시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월명체육관에서 2023년 군산시 여성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성희)가 주관하는 화합의 장으로 군산시 13개 여성단체 회원 및 군산시 거주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여성한마음대회는 아랑고고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및 기념식에 이어, 2부 행사로 어울림 한마당(명랑운동회) 및 경품 추첨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희 여성단체협의회장은 “평소 여성의 지위향상에 힘써 온 여성단체 회원들을 비롯한 많은 여성들이 더욱 화합하

고 발전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가졌다”며 “이번 한마음대회를 통해 여성들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시 여성의 일체감을 공고히 하고 여성의 잠재능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 기반 구축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한마음대회는 여성들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시 발전에 기틀이 될 수 있는 실천적 운동을 다짐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로 지난 2002년부터 코로나 19 시국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고 있다. /군산=박수현 기자